

## [2019-3-24] 주일 말씀 녹취록

제목 : 농치지 말아야 할 것

말씀 : 강만석 목사님

본문 : 신명기 8:11-20

11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찌어다

12네가 먹어서 배 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13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5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16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

20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과 같을까요 인생을 잘 살려면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 바로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르면 또 잘못 알고 있으면 세상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을 잘 살려면 내가 나를 잘 알아야 하고 세상은 어떤 곳 인가를 잘 알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고달프다고 다 들 아우성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길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광대한 광야를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라고 말합니다. 불교 기독교 모두가 인생을 고해요 망망대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모르고 가는 곳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이 가는 길은 무작정 부풀어 있는 그들의 대학을 졸업한다고 인생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는 길이 물과 먹을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서면 죽습니다 인생을 망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선택이 잘못됐다면 실패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망하고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제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한번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불과 불뿔과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인생의 길에 한 방에 멸망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불과 불뿔과 전갈에 물려서 한 방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락에 빠져서 마약에 정신적인 문제를 인해 재기 못 하는 젊은이들 중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꼭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사단이 인생을 송두리째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고 있다는 이사실만 제대로 파악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음료에도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생길을 가는 가장 중요한 좋은 길과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광야와 같이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잘 가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내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광야와 같고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장 잘 가는 것은 가장 안전하게 가는 것은 그 길을 가장 잘 알고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아는 안내자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의 길을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생의 길을 가장 잘 아는 안내자를 따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사막의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안내자로서 삼고 살아온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뿔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무사히 잘 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 하셨을까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뿔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불뿔과 전갈이 있는 길도 안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굳은 반석에까지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먹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승리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현장에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며 네게 부족함이 없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 하고 놓고 먹었습니다 그래도 언약을 잡고 있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목회 하면서 언약속에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때 그때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는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내 발이 부르츠지 아니하였으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축복 받기 위해서 일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까요 묻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모든 결과가 참 좋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결과적으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였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광야의 길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그대로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결국은 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좋은 안내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흑암에 묶여 있을 때 나를 사단의 손에서 완전 해방 되게 하시고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즉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인생에 길을 가장 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안내자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알게 될 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때부터 광야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가장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인도하신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땅에 모아놓고 이런 당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여 여호와 명령을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이다. 이것이 모세가 전한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인도하시던 모세는 죽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 하시게 되면 우리의 결과는 참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라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 받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 때가 갈 때 어떤 때는이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길로 가는지 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가 엉뚱한 길을 간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잘 하실

것입니다 그냥 교회 주일 한 번 나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축복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축복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감사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 여러분 현장에서 주일 선포되는 메시지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을 배우는 것 잃어버린 이유를 보면 세상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 북한,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북한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만든 사람이 누구니까 김일성입니다. 그 김일성 어머니는 권사님 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장로님 이십니다 그 가족이 교회를 전부 다 일으켜 세울만큼 신앙과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철저히 이렇게 망해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그 비밀 몰라서 사단은 세밀하게 그 가족들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도 가족이나 친지들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을 멀리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그동안 흑암에 묶여있었던 터라 많은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더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가 먹어서 배불리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서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 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데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때 일수록 더더욱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하여 잊어버릴까 하노라. 가진 자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일단 예수 믿다가 안 믿게 되고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하루 쉬지. 하나님께 교만, 반드시 패망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것을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네 손에 힘으로 네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때 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고 내 혼자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의 길을 들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그곳에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군 수송기가 알래스카 한복판을 날아가다가 대단한 강한 눈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공군 본부와 교신한 조정사는 그는 지금 정상적인 궤도에서 수백마일 벗어나 있다는 것을 정보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가면서 계속 계산하고 가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것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계산 못한 것은 강한 강풍에 의해서 비행기는 자꾸

자기가 가는 곳이 아닌 쪽으로 날라가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수백마일 벗어나 있는데 정보를 전해주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계산이 틀림없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다가 결국 비행기는 연료가 부족하여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비행기에 탄 여섯 명은 비행기를 버리고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하 70도와 시속 50마일로 부는 강풍 때문에 땅에 착지하자마자 몇 분 안에 다 얼어 죽습니다. 조종사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교만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길이다,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5절에는 우리에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우리가 영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임을 인정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에 언제나 따라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결정을 해야 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 하는 대로 따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집중 합숙훈련을 하는데 모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과의 2박 3일간 말씀 속에 기도속에 좋은 조언을 여러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2박 3일 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집중 합숙훈련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와 내가는 진로가 잘못 되어 있나 한 번쯤은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합숙 훈련, 팀 합숙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만 모여서 이제 한 2박 3일 동안 새로운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가셔서 한 2박 3일 동안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 해 주셨고 저희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며 내가 누린 그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에게 내 현장에 그대로 전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지만 그 누림에 인하여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데 많이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 길만이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 힘 늘 공급받아 우리 후대에게도 영적 힘 공급하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